

평창군시설관리공단, AI 해설 도입 스마트 관광 홍보 '호응'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10.15 09:55

‘평창 백일홍축제’서 500명 이상 체험...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로 관심



홍보부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10만여 명이 찾은 ‘2025 평창 백일홍축제’에서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디지털 융합형 관광 홍보부스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5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평창전통시장 일원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과 협력해 '관광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홍보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콘텐츠는 공단이 자체 개발한 AI 명예직원 '평창e'의 영상 해설 서비스였다.

방문객들은 부스 내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광천선굴의 증유석, 천연기념물 박쥐 서식지, 동굴 생태의 신비로움을 AI 해설가의 생동감 있는 설명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특히 MZ세대 방문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관광 해설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AI 설명 덕분에 광천선굴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쥐만들기 체험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함께 운영했다. '광천선굴 박쥐 만들기 체험'은 친환경 종이 키트를 활용해 직접 박쥐 모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단의 관광자원을 배우는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또 광천선굴 시그니처 향수, 박쥐 키링 등 지역 특화상품을 선보이며 평창 관광기념품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번 홍보 부스는 평창관광문화재단의 '별별상상 평창시장, 핑크로드마켓'과 연계해 축제-전통시장-관광지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광 동선을 완성했다.

열흘간 500명 이상이 부스를 방문해 공단의 관광시설과 지역 정보를 접했고 전통시장 내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공단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광천선굴 현장에 QR 기반 AI 해설 시스템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다국어 서비스와 AR 기술까지 접목해 스마트 관광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순철 이사장은 “AI 해설 서비스를 통해 평창의 관광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함께 높ی겠다”고 말했다.



AI 명예 직원의 영상 해설 서비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

